



EBS 분석서

20

10

독서

PROLOGUE

사라진 비문학 연계 체감...

그 체감을 되찾게 해줄 최후의 한 권

“만약에 수능에서 3문단 정도를 생략할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비문학은 수능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문학처럼 연계 체감이 되지도 않고, 화작문처럼 비교적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문학 지문은 난생 처음보는 토픽들로 이루어진데다가 엄청난 정보량을 포함하고, 문제들마저 세부적인 정보를 묻거나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2019수능은 그야말로 뒤통수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번 회상해 봅시다. N수생들은 작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고, 고3학생들은 학교에서 내로라하던 선배들이 무너지던 그 악몽을 떠올려 봅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수능에서 3문단 정도를 생략할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누구나 많은 것을 걸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연계입니다. 작년 비문학 지문 3개 중 2개가 연계 지문이었고, 그 지문의 핵심 내용이 수능특강/완성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역대급 난이도의 19번, 42번 모두 문제 주제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지문을 공부하면 100% 확률로 연계를 체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지문을 공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죠.

재수를 하면서 비문학 배경지식 교재가 없다는 것이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수특 지문 자체를 분석하거나, EBS와는 먼 지식을 다루고 있었죠. 마땅한 교재를 재수 내내 찾았으나, 끝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직접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EBS 분석서 ㄹㅇㅍㅌ는 시간대비 고효율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주제, 확장 가능한 주제, 알아두면 좋을 주제를 30개 선정하여 본문과 함께 배경지식을 정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지문의 주요 제재를 정리하였고, 화작문의 특이 제재까지 정리하여 수능에서 연계 지문이 나왔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수능 국어에 대해서

수능은 객관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정규 학업과정을 마친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국어의 경우는 크게 화작문, 문학, 독서로 나뉘며, 독서의 난도가 가장 높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독서의 경우는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1번에서와 같은 정답률이 19%인 초고난도 문제가 나온 것에서 그 난이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원의 질답 내용에서 “초고난도 문제는 지양하겠다”라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고난도 문제 여러 문제를 내어서 변별력을 확보해도 된다고 역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독서영역에 대한 심층적 대비가 필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서영역을 대비해야 할까요?

독서영역을 대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높은 독해 능력이겠죠. 독해 능력의 향상은 국어 영역 고득점을 위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독해란 무엇일까요?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단어와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해 자료의 각 부분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결합하여 만든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독해는 연계된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구상적 활동이며, 말하기와는 달리 실제 사회적 활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해 [讀解, reading comprehension]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요약하면, 글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인적인 활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독해 능력을 늘리면 독서를 잘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독해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생소한 개념은 단어부터 모르고, 그러면 문장을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죠. 독해력을 늘리기 위해선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학창시절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은 적으므로) 이는 시간 소모가 큰 행동입니다. 문제는 수능은 국어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학, 영어, 탐구에 한국사까지 수험생의 관심을 요구하는 과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다독할 시간도 없고, 국어 독해 능력도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의 최후의 보루는 배경지식입니다.

물론 배경지식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죠. 하지만, ‘적중’이 문제죠. ‘과연 도움이 될지’ 그 불확실성에 의해 배경지식을 무시하곤 하죠. 체감 연계가 되지 않는 걸 굳이 뒀 하러 시간을 쏟아가며 준비하느냐는 거죠.

잠시 평가원과 수험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능은 1달도 넘는 기간 동안 국내 최고의 대학교수 300명, 교사 180명이 투입되고, 국가기관인 평가원부터 국가정보원, 경찰의 도움과 함께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대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그 결과물인 수능 시험지는 예술 작품이라 칭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으며, 그 방대한 양에 비해 오류도 거의 없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인력이 몇 십 일동안 고심해서 낸 문제를 고등학생이 쉽게 푸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건 자명합니다. 그런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평가원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게임으로 치자면 ‘평가원 밸런스’ 같은 느낌이지요.

바로 ‘EBS연계’와 ‘현실 반영’입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지의 적정량(70%)을 EBS 교재와 연계 되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던 2019학년도 국어 중력지문 역시 연계지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많은 수험생이 EBS만이라도 확실하게 봤다면 31번 문제의 정답률은 19%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해당 지문에서 연계된 부분은 한 문단 반 정도 되었고, 실제 수능에서 그 정도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면, 많은 양의 시간이 세이브되겠죠. 그리고, 현실의 사실만을 제시하므로, 언제 어떤 학문을 공부해도 수능에 반영이 된다면 현실과 차이가 없기에 지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경지식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곤 있었지만, 적중 확률의 문제로 전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EBS연계에 의해 적중률 높은 지문을 학습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 교재의 일차적 목표는 적중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규 교육과정에 없는 생소한 개념이나, 새로운 내용, 더욱 포괄적인 설명이 필요한 지문을 선정하여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수능은 제한된 시간 안에 보는 시험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간을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화작문에서 답을 빠르게 찾는 방법, 영어에서 잘 찍는 ‘꼼수’ 방법은 찾아가면서 배우는 반면, 배경지식을 등한시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태도라 생각합니다.

어떤 교재인가요?

구성은 본 교재에 실린 문제는 0문제입니다. 순도 100% 텍스트입니다.

2020 수능능력시험 국어 영역의 연계 교재 중 “2020 수능특강 국어 영역 독서 편”의 보다 심층적인 학습을 위한 교재입니다. ‘적중’을 위한 책은 아니므로 집중적으로 달달 외우며 공부하지 말고, 가볍게 읽어서 동일 토픽이 나올 때 눈에 익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야 하나요?

1~2등급: 시간 확보를 위한 배경지식을 쌓는 용도

3~4등급: 수능특강을 심도 있게 학습하는 용도

5등급 이하: 독해 실력 향상을 위한 용도와 배경지식 학습

물론, 굳이 등급에 따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필요로 하는 목표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정답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수능특강을 봤다.

수특의 오답과 함께 어디서 놓쳤는지 확인하면서 내용 숙지

(2) 수능특강을 볼 건데 아직 안 풀었다.

수능특강은 모두 풀면서 본 책에 수록된 지문만 병행하여 학습.

(3) 수능특강을 안 볼 것이다.

이 책으로 수능특강을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연계 체감의 확률은 떨어지지만, 도움은 확실히 있습니다.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 장의 설명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봐야 하나요?

6월, 9월, 수능 직전만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 시기에는 기출 문제에 양보하세요.

COMPOSITION

프롤로그

작가의 말
설명서
교재 이용방법
독서 EBS 학습의 필요성
19학년도 독서 EBS 연계 분석

본문

교과서 개념 학습	032P
인문	044P
사회	070P
과학	094P
기술	108P
예술	126P
융합	154P
실전 학습	16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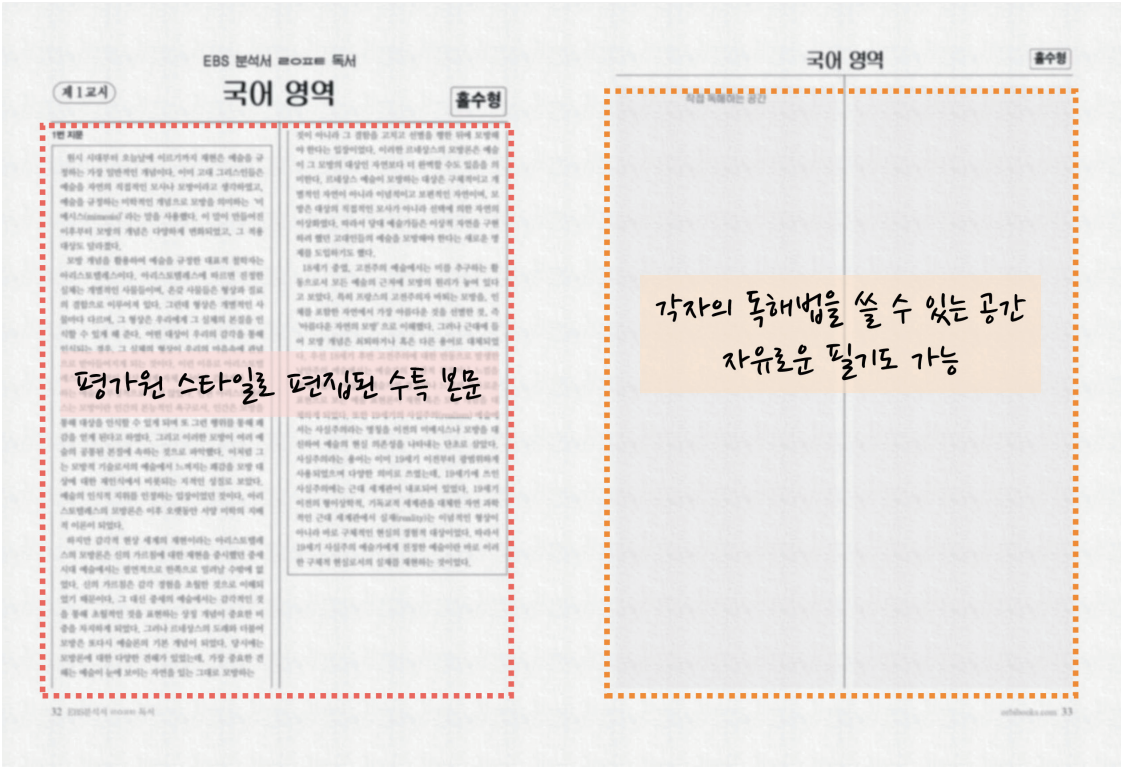
부록

184p
2019 수능과 화작문
화작문 제재 나열과 유형
화작문 수록 특이개념 정리와 문학작품 정리
독서 제재 나열
사용설명서 수록 제재와 중요도 정리
독서 제재와 키워드

에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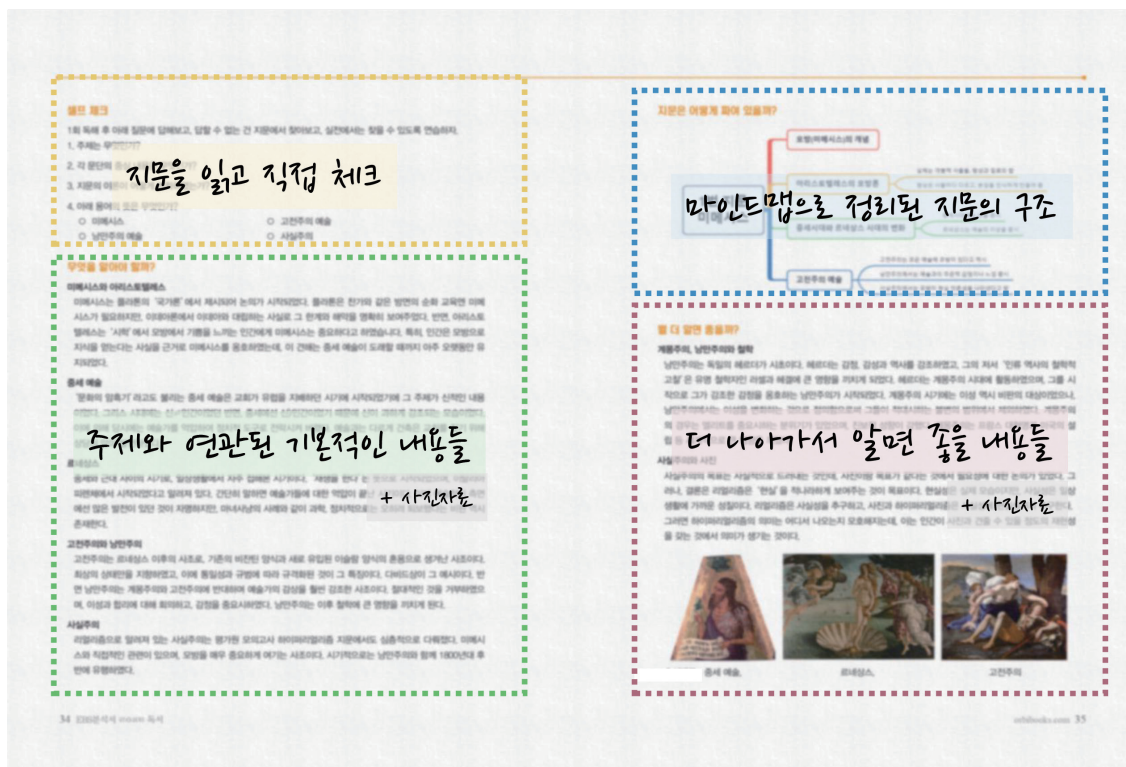
204p
검토진 서평과 칼럼
저자의 말과 공지사항
문항 유형과 셀프체크지

설명서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는 평가원 스타일로 편집된 수특 독서 본문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실제 시험을 치르듯이 독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백을 둔 이유는 지문을 모델링 하거나 필기를 위한 공간입니다. 수험생만의 독해 방법을 위한 공간입니다. 스포 방지를 위해서 제목은 일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지문에 대해서 잘 숙지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특에서 물어봤거나 중요한 개념을 수록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약간의 부연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개념을 다시 보시면서 자신이 독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는 지문 구조를 마인드맵으로 대략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에는 보다 나아가서 숙지하면 좋을 개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5, 6페이지에 추가로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실제 논문을 변형하였습니다.



본문

지문 번호	수록 페이지	소재	구분	본문 페이지
1	30	미메시스	교과서	
2	35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	교과서	
3	60	상식적 실재론과 표상적 실재론	인문	
4	64	인과 논변과 인과적 오류	인문	
5	73	튜링 테스트	인문	
6	76	동물의 도덕적 지위	인문	
7	83	도덕 상대주의	인문	
8	98	상표의 탄생	사회	
9	102	양심의 자유	사회	
10	108	근대 국가의 성립	사회	
11	114	광고와 조건화	사회	
12	118	양적 완화	사회	
13	130	베이즈 정리	과학	
14	137	다윈의 자연선택	과학	
15	148	분별 증류와 공비 증류	과학	
16	158	스택 알고리즘의 이해와 적용	기술	
17	166	침입 감지기	기술	
18	182	로봇의 군집 비행	기술	
19	177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기술	
20	199	카시러의 상징 형식으로서의 예술	예술	
21	202	무관심성과 경험 미학	예술	
22	206	네오리얼리즘과 뉴 할리우드 시네마	예술	
23	210	서예 감상의 분석적 방법	예술	
24	225	모노디 양식	예술	
25	249	캔델의 기억 메커니즘 연구	융합	
26	266	유전 공학의 윤리	융합	
27	272	국가 발전 방법론	테스트 1	
28	279	사회적 영향	테스트 1	
29	284	양명학	테스트 2	
30	288	멜서스의 인구론	테스트 2	



교과서 개념 학습

1번 지문

원시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재현은 예술을 규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다. 이미 고대 그리스인들은 예술을 자연의 직접적인 모사나 모방이라고 생각하였고, 예술을 규정하는 미학적인 개념으로 모방을 의미하는 ‘미메시스(mimesis)’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 말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모방의 개념은 다양하게 변화되었고, 그 적용 대상도 달라졌다.

모방 개념을 활용하여 예술을 규정한 대표적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진정한 실체는 개별적인 사물들이며, 온갖 사물들은 형상과 질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형상은 개별적인 사물마다 다르며, 그 형상은 우리에게 그 실체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어떤 대상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경우, 그 실체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관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적인 현상 세계 자체, 나아가 감각계를 모방하는 예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이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로서, 인간은 모방을 통해 대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 또 그런 행위를 통해 쾌감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방이 여러 예술의 공통된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그는 모방적 기술로서의 예술에서 느껴지는 쾌감을 모방 대상에 대한 재인식에서 비롯되는 지적인 성질로 보았다. 예술의 인식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은 이후 오랫동안 서양 미학의 지배적 이론이 되었다.

하지만 감각적 현상 세계의 재현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은 신의 가르침에 대한 재현을 중시했던 중세 시대 예술에서는 필연적으로 한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신의 가르침은 감각 경험을 초월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중세의 예술에서는 감각적인 것을 통해 초월적인 것을 표현하는 상징 개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의 도래와 더불어 모방은 또다시 예술론의 기본 개념이 되었다. 당시에는 모방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견해는 예술이 눈에 보이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합을 고치고 선별을 행한 뒤에 모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르네상스의 모방론은 예술이 그 모방의 대상인 자연보다 더 완벽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르네상스 예술이 모방하는 대상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연이 아니라 이념적이고 보편적인 자연이며, 모방은 대상의 직접적인 모사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자연의 이상화였다. 따라서 당대 예술가들은 이상적 자연을 구현하려 했던 고대인들의 예술을 모방해야 한다는 새로운 명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18세기 중엽, 고전주의 예술에서는 미를 추구하는 활동으로서 모든 예술의 근저에 모방의 원리가 놓여 있다고 보았다. 특히 프랑스의 고전주의자 바티는 모방을, 인체를 포함한 자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별한 것, 즉 ‘아름다운 자연의 모방’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모방 개념은 쇠퇴하거나 혹은 다른 용어로 대체되었다. 우선 18세기 후반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발생한 낭만주의 예술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적 감정이나 느낌을 절대시했다. 예술을 예술가의 감정이나 느낌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보는 예술 표현론이 재현 혹은 모방 개념을 대체하게 되었다. 또한 19세기의 사실주의(realism) 예술에서는 사실주의라는 명칭을 이전의 미메시스나 모방을 대신하여 예술의 현실 의존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삼았다. 사실주의라는 용어는 이미 19세기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의미로 쓰였는데, 19세기에 쓰인 사실주의에는 근대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었다. 19세기 이전의 형이상학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대체한 자연 과학적인 근대 세계관에서 실재(reality)는 이념적인 형상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현실의 경험적 대상이었다. 따라서 19세기 사실주의 예술가에게 진정한 예술이란 바로 이러한 구체적 현실로서의 실재를 재현하는 것이었다.

직접 독해하는 공간

셀프 체크

1회 독해 후 아래 질문에 답해보고, 답할 수 없는 건 지문에서 찾아보고, 실전에서는 찾을 수 있도록 연습하자.

1. 주제는 무엇인가?
2.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3. 지문의 이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4. 아래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
 - 미메시스
 - 고전주의 예술
 - 낭만주의 예술
 - 사실주의

무엇을 알아야 할까?

미메시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미메시스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제시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플라톤은 찬가와 같은 방면의 순화 교육엔 미메시스가 필요하지만, 이데아론에서 이데아와 대립하는 사실로 그 한계와 해악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모방에서 기쁨을 느끼는 인간에게 미메시스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인간은 모방으로 지식을 얻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미메시스를 옹호하였는데, 이 견해는 중세 예술이 도래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중세 예술

‘문화의 암흑기’라고도 불리는 중세 예술은 교회가 유럽을 지배하던 시기에 시작되었기에 그 주제가 신적인 내용이었다. 그리스 시대에는 신=인간이었던 반면, 중세에선 신>인간이었기 때문에 신이 과하게 강조되는 모습이었다. 이에 의해 당시에는 예술가를 억압하여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 예술과는 다르게 건축은 교회를 짓기 위해 상당히 많이 발전하였다.

르네상스

중세와 근대 사이의 시기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해본 시기이다. ‘재생을 한다’는 뜻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술가들에 대한 억압이 끝난 시기이다. 이에 예술적인 측면에선 많은 발전이 있던 것이 자명하지만, 마녀사냥의 사례와 같이 과학,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고전주의는 르네상스 이후의 사조로, 기존의 비잔틴 양식과 새로 유입된 이슬람 양식의 혼용으로 생겨난 사조이다. 최상의 상태만을 지향하였고, 이에 통일성과 규범에 따라 규격화된 것이 그 특징이다. 다비드상이 그 예시이다. 반면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와 고전주의에 반대하며 예술가의 감상을 훨씬 강조한 사조이다.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였으며, 이성과 합리에 대해 회의하고, 감정을 중요시하였다. 낭만주의는 이후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실주의

리얼리즘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주의는 평가원 모의고사 하이퍼리얼리즘 지문에서도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미메시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모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조이다. 시기적으로는 낭만주의와 함께 1800년대 후반에 유행하였다.

지문은 어떻게 짜여 있을까?



별 더 알면 좋을까?

계몽주의, 낭만주의와 철학

낭만주의는 독일의 헤르더가 시초이다. 헤르더는 감정, 감성과 역사를 강조하였고, 그의 저서 '인류 역사의 철학적 고찰'은 유명 철학자인 러셀과 헤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헤르더는 계몽주의 시대에 활동하였으며, 그를 시작으로 그가 강조한 감정을 옹호하는 낭만주의가 시작되었다. 계몽주의 시기에는 이성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으나, 낭만주의에서는 이성을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그들이 적대시하는 불변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계몽주의의 경우는 엘리트층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진보적 성향이 강했다. 계몽주의는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설립 등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사실주의와 사진

사실주의의 목표는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사진이란 목표가 같다는 것에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결론은 리얼리즘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목표이다. 현실성은 실제 모습이지만, 사실성은 일상 생활에 가까운 성질이다. 리얼리즘은 사실성을 추구하고, 사진과 하이퍼리얼리즘은 사실성에 현실성까지 추구한다. 그러면 하이퍼리얼리즘의 의미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호해지는데, 이는 인간이 사진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재현성을 갖는 것에서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중세 예술의 예술작품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작품



고전주의의 예술작품